



Happy+ Dream Season 막 올린다

인천명현중, 2016 자유학기제 활동 시작

인천명현중학교(교장 김기택)는 8월 16일 2학기 첫날 개학과 동시에 자유학기제 활동을 시작했다.
1학년 2학기에 실시하는 명현중학교의 자유 학기활동은 주제선택활동 34시간, 예술·체육활동 68시간, 동아리 활동 34시간, 진로활동 34시간으로 운영되는데 개학인 6-7교시 두 시간에 걸쳐 예술·체육 활동으로 자유학기의 첫 날개를 펼쳤다.

이로써 Happy+ Dream Season [Debate(토론하다), r-research(탐구하다), eexperience(경험하다), a-active(활동하다), m-motivation(동기유발)]이라는 가치를 걸고 자유학기제를 시작한 명현중학교 253명 1학년 학생들은 스스로 선택한 난타, 우쿨렐레, 바이올린, 뮤지컬 여행, 기초사각자이인 등 9가지 예술 활동과 핸드볼, 배구, 탁구 등의 2가지 체육 활동에 참여

여려 자신의 끼와 꿈을 찾는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이 외에도 통계분석이 되기, 학교 숲에서 만나는 생명과학, 다문화 이해교육, CM송 작곡하여 광고 만들기, 전통을 배우는 민화 장작만, 개인 개발자 되기와 같은 다양한 주제 선택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맘껏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부였던 동아리 활동은 스킨십대상생, 독서치료반, 항공우주과학반, 민화장작, 유비쿼

터스, 드림 나비와 같은 심화한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으로 관심과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김기택 교장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 시험의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보고, 토론, 실습 등의 체험활동과 진로 탐색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보는 자유학기제는 명현중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와 진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동기유발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인문섭 기자 as@

각종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자

인천연수여고, '매듭법 안전실습교육'

연수여자고등학교(교장 이재운)는 8월 29일-9월 1일 수학교과교실1에서 '매듭법 안전실습교육'을 1시간씩 총 200여 명의 학생에게 교육했다.
이번 행사는 2016년 9월 12일에 개최 예정인 제2회 연수여고 매듭법 실습대회를 위한 사전 교육활동으로 실시됐다.
많은 학생이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로프 사용법을 익혀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으로 기획됐다. 연수여고는 2015년부터 매듭법 실습대회를 개최해 고층건물 화재, 선박 침수 등 인환 비상사태 등에 필수적인 매듭법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다.
매듭법 안전실습교육은 2학년 학생안전지킴이(윤정민, 임가영, 남유경, 유유경, 김혜정)를 학생 강사로 양성해 친구들에게 교육할 수 있게 했다.
친구가 직접 가르쳐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매듭법을 배우려 오게 됐고, 모델별로 학생 강사가 매치와 매듭법을 정확하게 배울 기회가 됐다.
교육하는 매듭법은 사다리 매듭, 이중피셔매듭, 볼풀리인매듭, 팔자 매듭, 율배매듭 등 총 5개이다. 사다리 매듭은 하강할 때, 하중과 마찰력을 견딜 수 있도록 사다리처럼 균등하게 매듭이 형성돼 말이나 손이 지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중피셔매듭은 로프 2개를 연결해 길로써 만들며,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하는 매듭이다. 볼풀리인매듭은 로프에 감는 매듭으로 하중으로 인해 헐리거나 풀리지 않고 유지되는 매듭이다. 팔자 매듭은 로프의 말미 꼬이는 매듭으로 지지대에 고정해 걸 수 있는 매듭이다. 율배매듭은 모든 매듭의 마무리 매듭으로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한 번



다 묶어주는 매듭이다.
행사가 끝난 후 최보 학생은 "비상사태에 필요한 매듭법이 있음을 처음 알게 됐고, 학교에 매듭법 안전교육을 쉽게 배울 기회가 제공돼 좋았다"고 말했다. "9월 12일에 개최되는 매듭법 실습대회에 참가해 이번 배운 매듭법을 경험을 통해 고난 상수상의 기회도 가지보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학생 강사로 참여한 남유경(2학년 8반)은 "친구들에게 안전한 대피에 필요한 매듭법을 직접 가르쳐주게 돼 보람 있고 뿌듯했다"고 말했다.
인문섭 기자 as@

행복한 추억 가슴에 남아...

인천삼산중, 국토사랑 사제동행 자랑스런 내 고장 인천 탐방

삼산중학교(교장 박순삼)는 9월 3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관련해 국토 사랑 사제동행 프로젝트사업 2차 활동으로 인천차이나라운 및 수도권산 박물관을 탐방했다.
이 활동은 교육부가 주관하며 인천시교육청이 지원하는 국토 사랑프로젝트 사업으로 학생들이 나라 사랑 마음을 갖게 하고 내 고장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삼산지역 특성상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많은 것을 고려해 학생들의 문화적 소외 해정을 위한 토요 문화 활동으로 진행했으며 애정심을 함양시키고자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내 고장 인천 탐방으로 차이나나라운과 수도권산 박물관과 동화 마을

을 탐방했다.
25명 참여 학생들이 남-여 두 개의 조로 나뉘어 여학생은 동화마을과 차이나나라운, 남학생은 차이나나라운과 자유공원을 각각 핵심사가 함께 설명해 줬다.
또한, 수도권산 박물관에서는 1960-70년대 인천의 발전 모습을 비교하며 달동네의 예전 모습과 지금 눈부시게 발전된 인천의 모습을 살펴봤다.
인천의 발전된 모습을 보며 내 고장 인천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좋은 기회가 됐다. 또한, 서로 사진도 찍어 주고 주변의 모습을 사진에 담으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박순삼 교장은 "이번 국토 사랑 프로젝트



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며 이 활동을 통해 내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학생이 됐으면 한다는 말과 함께 행복한 추

억으로 가슴 속에 남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인문섭 기자 as@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 유감없이 발휘하다

인천동방중,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탁구(남), 줄넘기(남) 우승

인천신평여중학교(교장 심순옥)에서는 지난 9월 11일 '2016 인천시교육청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인천동방중학교(교장 우상영)는 탁구(남)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해 다가올 10월에 개최되는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탁구(남) 부문 인천시 대표로 선발됐다.
인천시 5개 시교육청 대표로 출전한 동광중, 부광중, 서광중을 차례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하는 동안, 인천동방중학교의 많은 교사와 학부모 및 학생들이 열띤 응원으로 선수들에게 힘을 보탰다.
이날 참가한 10명의 대표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첫 게임을 일점씩 경기 후 나머지 경기는 호쾌하게 풀어나가, 양으로 열띤 전구 대회를 위한 기대를 더욱 키웠다.
이날 참가한 3학년 이명삼, 이민섭 형제는 우승의 원동력으로 "초등교부터 탁구를 했지만, 중학교 올라서 본격적으로 체육 수업, 체육 수업, 방과후활동 등에서 탁구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실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학교 곳곳에 있는 탁구대에서 많은 학생과 실력을 겨룰 수 있었던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라며 학교 내의 탁구

가 활성화된 여건을 꼽았다. "우리 학교 탁구 동아리 역사상 최초로 시 대표로 선발된 것과 그 주인공이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며 대회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이보다 하루 전인 9월 10일(토)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2016 인천시교육청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줄넘기 부문에서 인천동방중학교의 줄넘기 팀이 남자부 우승, 여자부 준우승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대회 결과로 인천동방중의 남자 줄넘기부는 10월 말경에 피주에서 열린 전국 대회에 인천시 대표로 출전하게 됐다. 줄넘기부 부장 3학년 이민수 학생은 "월일부터 줄넘기 동아리에 들어간지 아직, 점심, 방과후에 꾸준한 연습했는데, 경기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 연습 기간이 길어서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게 돼 매우 기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3학년 이재호 학생은 "줄넘기를 통해 체력도 튼튼해졌고, 같은 동아리 후배들과 친하게 지내게 돼 좋습니다. 이제 전국대회를 목표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소감을 전했다.
인문섭 기자 as@

낙지요리전문점

행복한 낙지

저희는 좋은 재료와 정성으로

낙지볶음

3가지 맛으로 골라드세요!!!

1. 화끈하게 매운맛
2. 감칠맛나게 기본맛
3. 순하게 안매운맛

낙지요리 전문점

본점

인천시 연수구 정방로 171, 1층 (옥련동) 흑민초교 청문삼
예약문의 (032)834-7740 단척식 및 대형주차장반비

낙지요리전문점

1,000원부터

행복한 낙지

산낙지전골

산낙지찌짐

산낙지전골

산낙지찌짐

모든 메뉴 포장

낙지요리 전문점

낙지요리 전문점

834-7740

가정 위기 학생 돌봄지원-인천시교육청 2016년 2곳 추가 신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이명환)은 가정적 위기 등으로 보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하여 가정형 위(Wee)센터 2개소를 추가 설립한다고 밝혔다.
가정형 위(Wee)센터는 학생들에게 상담, 치유, 교육 등을 함께 제공하여 가정적 위기나 폭력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Wee)센터이다.
인천시교육청은 현재 2011년에 개소되어 가정 보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학생(중1-고3)대상 '인친행복한가정위(Wee)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중·고등학교 남학생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가정형 위(Wee)센터를 올해 추가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교육 사회적 우리가 점차 초

등학생으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초등학생의 안정적 돌봄 역할을 위하여 중·고등 남학생과 더불어 초등학생을 위한 가정형 위(Wee)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공속자 과장은 "가정 행태로 인한 방위과 폭력 등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내 위기학생에 대하여 가정적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남학생과 초등학생 가정형 위(Wee)센터를 추가 설립하여 여학생 가정형 위(Wee)센터와 함께 학생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제공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력하였다.
가정형 위(Wee)센터 위탁운영기관 접수는 9월30일까지이며, 올해 12월1일을 개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북부교육지원청 '내 자녀와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 연수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환)은 9월 19일 북부 관내 유·초등학교 학부모 150여명을 대상으로 '내 자녀와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 학부모 연수를 실시했다.
이 연수는 효과적인 자녀양육을 위하여 준

비한 것으로, 연수 강사로 참여한 이학기(HD기독교센터내 감성코칭강사)는 학부모들이 자신의 대화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공감각 대화방법을 습득하고, 자녀와 원활하게 소통함으로써 자녀의 자존감과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의하였다. 이 연수를 통해 학부모들은 자녀의 눈에는 생활교육과 더불어 드러나지 않는 강점의 언어를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